

천주교 세종로성당

원죄없으신성모성심 성모순례지

03169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9
(사무실:733.1471/팩스:732.3354)




나거나 들거나 주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시편 121,8)



세종로성당 유튜브
<http://www.sejonglo.org>

주 일 미 사	오전 6:00, 9:00(중·고등), 10:30(교중), 12:00, 오후 6:00(청년)	평 일	월~토 오전 6:00	주 임 : 박동균 도나도 신부
토요일 저녁 주일미사	오후 3:30(초등), 오후 6:00	미 사	화~금 오후 7:30	부 주 임 : 전창훈 시몬 신부
예수성심 신심미사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7:30 (미사 후 성체강복)			수녀 원 : 장 마리보나 수녀, 안 마리아야 수녀
성모 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6:00			유치원 : 임 광순이사벨라 수녀 733.1475
				사목회장 : 한근영 루가
				연령회장 : 양을석 바오로 010.8739.3490



축 부 활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한식 합동위령 미사 (영복산 묘원)

- 일시 : 4/6(토) 오전 11시
- 미사 참례를 희망하시는 분은, 3/31(주일)까지 사무실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4월 신심미사

- 예수성심 신심미사(성체강복) : 4/4(목) 오후 7시 30분
- 성모 신심미사 : 4/6(토) 오전 6시
- 4/6(토)는 가정주일로 어린이 미사가 없습니다.

● 봉성체 : 4/3(수)

- 희망하시는 분은 여성구역이나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순 저금통 봉헌

모금하신 사순 저금통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로 보내어 사회복지시설과 사회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됩니다. 3/31 오늘까지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 부활 행사 (삼겹살 파티)

- 일시 : 3/31 (주일) 청년미사 후, 신문로 교육관
- 청년 여러분의 참석을 기다립니다.

● 중고등부 부활 행사

- 일시 : 4/7(주일) 중고등부 미사 후, 신문로 교육관

● 청년 전례부, 성가대 모집

청년미사에 전례 봉사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 전례부 : 김민호 미카엘 010-6241-7360
- 성가대 : 김효빈 로셀리나 010-7664-9996

●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을 위한 영적예물

- 기간 : 3/31(주일)~4/8(월), 9일간
- 내용 : 주교를 위한 기도(가톨릭기도서 90쪽), 성모송, 주님의 기도, 영광송
- 영적예물은 로비에 준비된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

2027년 여름에 개최될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묵주기도를 봉헌하시고, 사무실에 준비된 봉헌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모임 안내

단 체	일 시	장 소
남성구역 구역장	3/31(주일) 9:30	소강당
자비의 모후 Cu.	4/9(화) 11:30	소강당
여성구역 구역장	4/10(수) 10:00	소강당
여성구역 구.반장	4/10(수) 11:00	소강당
신자들의 도움 Cu.	4/14(주일) 12:00	신문로교육관

우리들의 정성 (3/18~24)

• 주님수난성지주일 (811명)	5,028,000원
• 사순절이웃돕기특별헌금	3,011,000원
• 교무금 (56세대)	4,690,000원
• 감사헌금	250,000원
마영애 100,000 김정옥 100,000 장용숙 50,000	
• 건축헌금	2,150,000원
이미령 1,000,000 정세영 100,000 강수하 300,000	
안성준 100,000 김희경 500,000 장수임 50,000	
최오순 100,000	
• 성소후원금 (3세대)	60,000원
• 총 합 계	15,189,000원

※ 교무금 납부 계좌 :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은행 124-04-112086

※ 건축헌금 납부 계좌 : 천주교 서울대교구

하나은행 272-910032-68304



빈 무덤 이야기

태와 무덤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이 숨겨진 실재들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으며 낱말이나 개념을 넘어서는 일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주님의 부활과 구원의 표징인 그분의 십자가, 사흘 동안의 죽음이라는 신비를 펼쳐 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세주께 일어난 모든 사건은 우리 구원의 신비가 겹으로 드러난 표징이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어머니의 순결무구한 태에서 태어나셨듯이 닫힌 무덤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당신 어머니의 맘으로 나셨듯이, 당신의 부활에서도 죽은 이들 가운데 맘이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당신 어머니의 동정성이라는 봉인을 뜯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실 때도 무덤의 봉인을 부서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탄생을 완벽히 묘사하지 못하듯이, 그분께서 무덤에서 나오신 일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크리소스토무스)

땅의 태가 출산하다

처음에 육의 태 안에 감추어졌던 분께서 당신의 탄생으로 인간의 탄생을 성화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중에는 땅의 태 안에 감추어져 당신의 부활로 죽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고통과 괴로움과 한숨이 모두 달아났습니다. 누가 하느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그분의 조연자였던 이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되신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들어 올려지신 분 아납니까?

이날은 기쁨의 소식을 가져옵니다. 이날은 주님께서 아담의 족속을 들어 올리신 주님 부활의 날입니다.

인간을 위해 태어나신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날, 부활하신 분과 함께 낙원이 열립니다. 아담이 생명으로 돌아오고 하와가 위로를 받습니다. 이날, 거룩한 분의 부르심이 들리고, 나라가 준비되며,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께서는 경배를 받으십니다. 죽음을 발로 짓밟고 폭군을 죄수로 만들고 저승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 이날, 그리스도께서는 승리를 거둔 임금으로서, 영광 속에서 다스리는 이로서, 무적의 전차를 모는 전사로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 제게 주신 자녀들과 함께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시편 110,1). 그리스도께 이제와 영원히 세세대대로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헤시키우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이 되어
서둘러 무덤으로 가십시오.
고귀한 경쟁에서 질세라
빨리 달려가십시오.
설사 그대의 발걸음이 더 빠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누가 더 간절히 바라는지
보여드리는 일에서는 승리하십시오.
무덤 안을 들여다보지만 말고
안으로 들어가십시오.(그레고리우스)

